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미국 3PL 시장규모, 올해 2,000억 달러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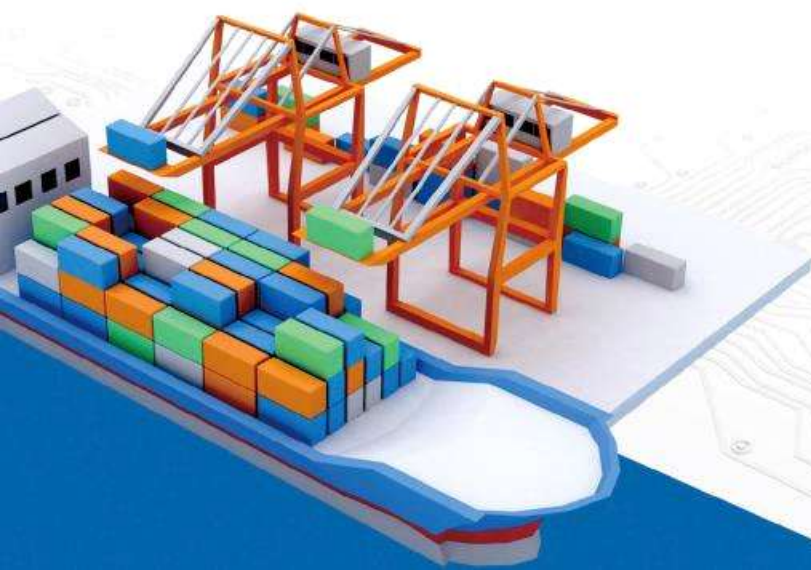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롱비치항, 내년 친환경 장비 테스트 실시 예정
2. A.P.Moeller-Maersk의 시장가치 올해 들어 1/3 감소
3. 인포시스(Infosys), 지멘스(Siemens)와 IoT 파트너십 체결
4. 지부티, 아프리카 최대 국제자유무역지역(DIFTZ) 개장

명사 스피치

“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. 한반도 철도가 TSR, TCR 등 대륙 철도와 연결되면 물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 해상운송 상당 부분이 철도운송으로 전환될 것이다. 특히 부산·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과 연계시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.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나진-하산 구간 철도망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나진-하산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.”

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
(2018. 7. 18. /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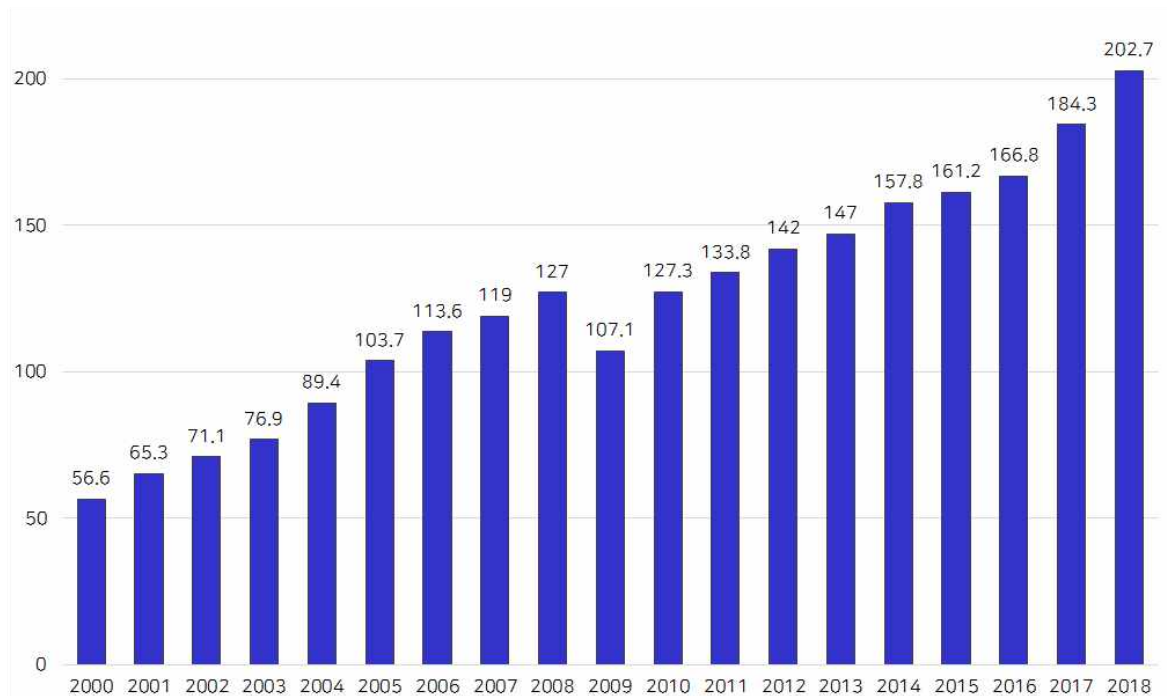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미국 3PL 시장규모, 올해 2,000억 달러 예상

미국 3PL시장 규모 변화(2000-2018)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미국 3PL 시장 규모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금년에는 2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 - 2000년 566억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3PL 시장 규모는 연평균 7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에 2,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
- 미국 3PL 시장의 규모, 안정성 및 성장률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그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

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, 2018.07.16.
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

롱비치항, 내년 친환경 장비 테스트 실시 예정

- 롱비치항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(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; CARB)로부터 53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후 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비 배치를 추진 중에 있음
 - 이는 북미에서 두 번째로 바쁜 항만인 롱비치항에서 두 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무공해(Zero Emission) 장비를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음
 - 본 테스트는 C-PORT라 불리는 롱비치항 오프로드 기술 시연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후 관련 투자의 일부임
 - C-PORT 프로젝트는 경제를 강화하고 공중보건(Public Health)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(GHG) 배출도 줄이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임
-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탑핸들러 3대,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 1대,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 1대 등 총 5대의 장비가 투입될 예정임
 - 본 테스트는 항만운영 무공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이들 5대의 장비를 사용할 예정임
 - 항만위원회 위원장인 Lou Anne Bynum씨는 “우리는 2005년 Clean Air Action Plan을 도입한 후 거의 90%의 디젤 배출을 감소시켰으며, 이를 기반으로 항만 전역의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함
 - 롱비치 항만의 사무국장인 Mario Cordero씨는 “오염물질 배출제로 항만을 만들기 위해 CARB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중요한 시연 프로젝트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”고 함

US Hybrid사의 연료 전지를 탑재한 트럭



자료 : <https://www.presstelegram.com/2018/04/04/port-of-long-beach-begins-pilot-program-to-reduce-pollution>, 2018.4.4.

- 참고자료 : Porttechnology.org, Port of Long Beach to Test Zero-Emissions Equipment, 2018.7.12.
Press-Telegram, Port of Long Beach begins pilot program, 2018.4.4.

A.P.Moeller-Maersk의 시장가치 올해 들어 1/3 감소

- 세계 해운시장 점유율 15%의 가장 큰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머스크의 주가가 2017년 하반기 대비 약 2/3 수준으로 하락(아래 그림 참조)
 - 2018년 7월 12일 14:18 현재, 머스크의 주가는 7,768 덴마크 크로네로 급락
 - 2017년 7~8월을 기점으로 머스크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
 - 2017년 하반기 평균적으로 약 1만 1~2천 크로네 수준을 유지했으나, 2018년 들어 또다시 하락 추세, 6월 중순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8천 크로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를 기록 중
 - 주요 요인으로서, 최근의 수요 감소 및 선박 연료비 상승,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여파 등을 들 수 있음

2017년 하반기~2018년 상반기 머스크 주가 추세



자료 : 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maersk_facing_tough_2nd_half_of_2018

- 싱가포르 교통연구기관 Crucial Perspective의 설립자 겸 CEO인 Bloomberg씨와의 인터뷰 결과 작년 대비 bunker 연료비 상승 요인은, 머스크의 수익성 극대화를 저해하고 있으며, 이는 머스크의 전체 회계연도에 손실로 작용할 리스크가 큼
 - 특히 머스크는 극동-북미 항로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운송업체로서 관세를 둘러싼 중·미 무역전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으며, 이 역시 머스크의 재무 결과 악화에 직결되고 있음
- 근본적으로, 해상운송업체 공급과잉 현상을 줄여 수요·공급의 밸런스를 맞추고 해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
 - 머스크는 7월 중순에 아시아-북유럽 구간 서비스 축소를 발표했음

■ 참고자료 : PORT TECHNOLOGY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>, 2018.7.12.

인포시스(Infosys), 지멘스(Siemens)와 IoT 파트너십 체결

- 인도에 본사를 둔 다국적 IT 서비스 업체인 인포시스는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(Siemens PLM Software)와 IoT 파트너십을 체결함
 - 컨설팅, 기술 및 차세대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인포시스는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와 협력해 고급 IoT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함
 - 인포시스는 디지털 서비스 및 컨설팅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, 지난해 9월에는 컨테이너 선박에 AI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로벌 해운선사 중 하나인 CMA CGM과 파트너십을 체결함
 - 또한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부터 제조, 생산 등 전 프로세스의 최적화 및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, 현재 중국에 특화된 IoT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하고 있음
- 양 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, 운송 및 물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
 - 인포시스와 지멘스는 기존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IoT 운영체제인 MindSphere*용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임
 - * MindSphere는 지멘스의 기존 IoT 운영체제로, 산업기계 및 기타 장비를 디지털 시스템에 연결해 고객이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
 - 이용자들은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예측 및 엔드 투 엔드(end-to-end) 구현 등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
 - 주로 제조, 에너지, 공공시설, 의료, 제약, 운송 및 물류산업 전반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됨
- 인포시스의 Ravi Kumar 사장은 “지멘스와의 새로운 MindSphere 파트너십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합쳐지길 바라는 우리의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한다”고 밝힘
 - 또한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수석 부사장인 Paul Kaeley씨도 “인포시스의 산업용 엔지니어링 분야 강점 및 증간현실과 같은 신기술분야의 산업분석 경험, 그리고 지멘스의 제조 전문 기술을 통해 고객들에게 광범위하고 차별화된 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Port Technology, ‘Infosys Announces IoT Partnership with Siemens’, 2018.7.16

김영훈 연구원
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지부티, 아프리카 최대 국제자유무역지역(DIFTZ) 개장

- 지난 7월 5일 지부티는 240ha 규모의 3억 7천만 달러가 투자된 지부티 국제자유무역지역(Djibouti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s; DIFTZ) 첫 단계를 개장
 - 이번에 개장한 DIFTZ는 전체 35억 달러가 투자된 4,800ha 규모의 프로젝트 중 일부로 아프리카 최대 크기를 자랑함
 - 여기에는 무역 및 물류 단지, 수출가공, 제조 및 면세상품 유통, 비즈니스 및 금융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 총 4개의 산업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음
 - 이번 DIFTZ 건설에는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초상국그룹(China Merchants Group), 대련 항만 공사(Dalian Port Authority) 및 IZP Group 등 3개 기업이 운영·관리를 수행 예정

지부티 국제자유무역지대(DIFTZ) 전경 및 조감도



자료: QUARTZ(<https://qz.com/>), Djibouti Port & Free Zones Authority(<http://dpfza.gov.dj/>) 2018.7.13. 검색

- DIFTZ는 아프리카 혼(Horn of Africa) 지역이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동시에 아프리카의 내륙국이 지부티항을 통한 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함
 - DIFTZ를 통해 해당지역이 국제무역과 물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임
 - 특히 아프리카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디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내륙(Landlocked) 국가들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이 내륙국들이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역 역할이 가능함
 - 2017년 1월 DIFTZ 개발 계획 당시 지부티의 도라레 다목적부두(Doraleh Multipurpose Port), 타주라(Tadjourah)항 및 구벳(Ghoubet)항 등 3개 항만의 확장계획이 함께 수립되기도 했으며 올해 2월 공사가 시작됨
- DIFTZ는 중국의 일대일로(Belt & Road)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DIFTZ를 포함한 지부티에는 중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 - 대표적으로 2017년 중국은 지부티와 이디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(Adis Ababa) 간 756km의 다국적 전기철도 건설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공사를 진행함
 - 또한 올해 DP World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지부티항의 컨테이너 화물 증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

싱가포르 기반의 PIL(Pacific International Lines)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
- PIL는 지부티항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hina Merchants Port Holdings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임

- 한편 이 같은 투자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지부티의 채무불이행 시 국가 주요 인프라가 중국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
 - 과거 스리랑카는 중국 기업에 대한 채무가 증가해 채무 상환 방법으로 함반토다항의 운영권을 중국에 매각한 바 있으며,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상황이 지부티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함

■ 참고자료 : Port technology(www.porttechnology.org), Djibouti Port & Free Zones Authority (<http://dpfza.gov.dj>) 참조 2018.7.13. 검색

김보경 연구원

051-797-4674, kimb@kmi.re.kr

